

## 지난해 산불·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117억 원 규모 피해지원금 추가 지급 결정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)는 지난해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 산불과 7~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.
- 이번 추가 지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(2025. 11. 28. 시행)에 따라,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.
-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(대통령령, 훈령·고시)에 반영했고,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(2.11.~3.13.)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.
- 이에 따라, 기존에는 농업·어업·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-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.
-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·지방세 납부 유예,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.
- 특히,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지원 외에도, 「경북·경남·울산 산불피해지원법」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.

- 윤호중 장관은 “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”라며,
- “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,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빈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	문균호 (044-205-5314)
			사무관	이재영 (044-205-5318)
<공동>	기획예산처 국민안전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영웅 (044-214-2970)
		담당자	사무관	강인주 (044-214-2973)
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	책임자	팀 장	최종순 (044-201-2871)
		담당자	사무관	안광현 (044-201-2872)
<공동>	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	담당자	사무관	박 한 (051-773-5392)
<공동>	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	책임자	과 장	채왕식 (044-204-7390)
		담당자	사무관	장덕수 (044-204-7393)
<공동>	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	책임자	과 장	조진호 (042-481-4190)
		담당자	주무관	김기형 (042-481-1848)